



湖南新聞



1946년 3월 창간 제 2511호

이메일 : ihonam@naver.com

홈페이지

NAVER

호남신문

검색

2018년 5월 30일 (음력 4월 16일) 수요일

‘가격폭락에 병해까지’ 양파 재배농가 겹시름

전남지역 양파 재배 농민들이 들쭉날쭉한 생산량 조사에 따른 과잉 재배로 양파 가격이 폭락한데 이어, 병해까지 겹쳐 겹시름에 빠졌다.

29일 전남도에 따르면 전남지역 중만생종 양파 재배면적 9627ha 중 3186ha(33.1%)에서 잎마름병이 발생한 것으로 추정됐다.

무안이 1747ha로 가장 많고 신안 520ha, 함평 500ha, 장흥 100ha, 영광 69ha 등으로 월동기 한파에 4월초 이상 저온과 잦은 강우, 고온, 일조량부족 등 복합적 요인에 따라 병이 발생한 것으로 추정됐다.

전국 농민회 총연맹 광주전남연맹은 “농림축산식품부가 양파 병해를 조사했지만

전남지역 중만생종 재배면적 9627ha 중 33.1% 잎마름병

맥류서도 붉은 곰팡이병 발생... “재해복구비 지원 노력”

이번 피해를 농민의 방제 소홀로 인한 피해로 재해로 보기 어렵다는 의견을 보여 피해 농민들의 크게 분노하고 있다”면서 “양파 병해 확산으로 인한 수확 불능 상태 자연재해로 인정하라”고 촉구했다.

농협 전남지역본부도 전남 양파 병해가 확산됨에 따라 무안과 신안 양파밭 피해 현장을 찾아 피해 상황을 긴급 점검했다. 전남도는 농어업재해대책법에 따른 농작

물 재해 피해가 인정되도록 농림축산식품부에 요청했다.

재해로 인정되면 양파는 농약대 ha당 168만원, 대파대 ha당 410만원 등을 지원받을 수 있으며 영농자금 이자감면 등의 혜택이 주어진다.

앞선데 겹친격으로 맥류에서도 병해가 발생했다.

보리 1만2958ha 및 밀 2614ha 등 맥류 재배

면적 1만15572ha 중 5070ha(32.6%)에서는 붉은 곰팡이병이 발생했다.

살보리 2856ha, 밀 1830ha, 맥주보리 384ha 등이다.

시·군별로는 1620ha, 보성 1500ha, 해남 1000ha, 함평 950ha에서 피해가 발생했다.

전남도는 유숙기 이후 계속되는 강우가 붉은 곰팡이병의 발생 요인으로 추정하고 있다.

전종화 전남도 농림축산식품국장은 “농축산부 식량산업과 조사결과에 따라 재해 복구비 지원여부가 결정되므로 재해 복구비가 지원되도록 발생원이 조사 등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김정환 기자



사범 농단

김명수 대법원장이 양승태 대법원의 사범농단과 판사 블랙리스트 의혹과 관련해 “진심으로 죄송하다”며 “합당한 조치를 마련하겠다”고 28일 밝혔다. 김 대법원장은 이날 오전 9시 서울 서초동 대법원 청사로 출근하며 추재진에게 “이번 일로 인해서 국민 여러분들께 걱정과 실망을 안겨드린 점에 대해 진심으로 죄송하다”고 말했다. 김 대법원장은 “저 역시 마찬가지로 굉장히 실망하고 있다”고 고백했다. 검찰에 수사를 의뢰할 것인지를 묻는 질문에는 김 대법원장은 “그런 부분까지 고려했다고 했다. 김 대법원장은 이번 조사단의 조사 결과와 다른 의견이 있다는 것도 언론을 통해 잘 알고 있다”며 “합당한 조치와 대책을 마련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관련 인사들의 속세를 상상해 본다.

조인호 · 자료사진=뉴시스



보리 익어가는 강진들녘

29일 강진군 강진을 남포들녘의 아직 수확하지 않은 보리논 앞에서 농민들이 모내기를 하고 있다.

올해 말 개통 ‘신안 새천년대교’ 전남 서남권 新랜드마크

연장 7.22km 국내서 4번째로 긴 교량 활기차고 리듬감 있는 야간경관조명

신안군 압해도와 암태도를 연결하는 새천년대교가 서남권의 새로운 랜드마크로 떠오를 전망이다.

29일 익산지방국토관리청에 따르면 2010년 9월 착공한 새천년대교는 올해 12월 개통 목표로 현재 88.4%의 공정을 보이고 있다.

새천년대교는 총사업비 5689억원을 투입하는 교량으로 연장이 7.22km인 국내에서 4번째로 긴 교량이며, 우리나라 최초로 단일

교량에 현수교와 사장교를 함께 배치하는 형태다.

익산청은 지난 3월부터 신안군과 협의를 통해 야간 경관조명과 송공교차로 설치에 관한 협약을 체결하고 새천년대교를 관광 명소로 집중 육성하기로 했다.

당초 설계에 반영한 새천년대교의 조명 방식(정적조명과 동적조명)으로는 관광 명소에 부족하다고 판단해 활기차고 리듬감 있는 동적조명으로 변경할 방침이다.

2019년 송공항 배후 공유수면 매립 완공 후 다기능 수산위판장 건립, 수산식품 거점 단지 조성 등 교통량 급증에 대비해 새천

년대교와 연결하는 신설도로도 2019년 4월까지 개통한다.

사업비는 신안군이 투입하고 익산청도 예산당국과 협의해 예산을 추가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새천년대교가 개통하면 교통여건 개선은 물론 교량과 야간 경관조명을 보기 위해 주·야간 관광객이 몰릴 것으로 예상돼 신안을 비롯한 전남 서남권 경제에 긍정적 영향을 줄 것으로 전망된다.

김철홍 익산지방국토관리청장은 “새천년대교에 최적의 경관조명을 설치하고 교량을 조망할 수 있는 컴퓨터도 개설했다”고 말했다.



익산지방국토관리청은 올해 12월 개통 예정인 전남 신안군 새천년대교(압해도~암태도)가 서남권 관광명소가 될 수 있도록 경관조명을 설치한다고 29일 밝혔다. 사진은 조감도.

의 랜드마크가 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조인호 기자

아름다운 선거 행복한 우리 동네

6.13. 아름다운 선거 행복한 우리 동네

광주광역시선거관리위원회 | 전남도선거관리위원회 | 한국선거방송

가슴 두근거리는 그 날, 투표하세요!
유월의 따뜻한 햇볕같이 우리 동네 민주주의는 더욱 아름다워집니다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사전투표: 6월 8일(금) ~ 6월 9일(토)
오전 6시 ~ 오후 6시

선거일 투표: 6월 13일(수)
오전 6시 ~ 오후 6시